

합격 수기

제목 : 수술을 연기하고 시험보다

들어가며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직장 퇴근 후 본격적으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차 과목의 단과 인터넷 강의와 책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퇴근 후 9시 넘어 책상에 앉았으나 줄려 목표했던 공부량이 늘 부족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가족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둘째 아들이 고3이라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 우선으로 생활 패턴을 가졌고, 어느덧 1차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민법 공부량이 방대하여 이준현의 조문판례책을 다 보지 못하고 응시하게 되었고, 공부량과 시간 안배하는 실전 연습이 모두 부족하여 마지막 과목의 5문제 이상은 그냥 찍어서 답을 적었으나, 전체 합격선에서 2개 차이로 떨어져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마음먹었던 공부량이 나오지 않아 1차 시험 앞에서는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2022년 1차에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2차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퇴근 후 할애하다 보니 2차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참가 의미로 응시했으나 민법 과락 외 나머지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만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대 출신으로 최신 시험 트렌드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공부만 고집하게 되어 2023년 제29회 재시에 떨어진 후, 정신 번쩍 들어 합격수기를 찾아 읽는 등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24년 1차 시험 합격 후 2025년 2차

시험 때는 서울법학원의 올패스II 인터넷강의를 들었는데 시험 합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전 문제풀이와 같이 답안 작성을 하고 첨삭지도를 받는 것이 시험장에서 시간 안배와 필기속도 등에 있어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1차과목 시험 준비

헌법은 권순현의 헌법강의, 객관식문제집, 상법은 이상수의 상법기본강의와 상법전의 기출문제집과 하영태의 조문판례집, 민법은 이준현의 logos 조문판례집, 가족관계등록법은 김지후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책과 문제집, 민사집행법은 김지후의 조문판례의 맥, 상업등기법은 김경중의 상업등기법과 정리용노트, 부동산등기법은 유석주의 부동산등기법과 김기찬의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은 이천교의 공탁법의 요약집과 문제집을 보았으며, 처음에는 기본서를 한번 보고 나서 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렸고, 문제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기본서를 찾아 다시 보았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험 기간을 단축하려면 먼저 많은 합격 수기를 보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헌법과 상법은 범위가 넓어 수험생이 많은 부담을 가지는데, 헌법은 추상적 개념이 많아 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어려우나 중요한 개념은 반복하여 보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 등은 명확히 암기해 놓으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흐릿한 기억을 가지게 되면 지문을 반복해서 읽게 되고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상법은 총칙과 상행위, 회사편 부분은 가능한 확실한 공부를 해두길 권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부량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은 1차 때부터 2차 시험을 염두하고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1차 합격만 생각하고 기본서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문 및 판례집 위주로 공부하여 마지막까지 고생한 과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김지후의 책과 문제집을 보았으며, 어차피 실무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없어도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실생활과 밀접하여 흥미는 있었으나 명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많이 헛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반복하여 보고 노트에 적어 시간 있을 때 수시로 보기를 권합니다. 김지후의 조문판례의 맥이 판례의 중요도 표시되어 있어 읽기가 편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김경중의 인터넷 강의와 기본서를 보고 마지막에는 정리용 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유석주 책으로 시작하였으나, 기출문제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아 김기찬의 1차 기본서로 보았는데, 기출문제 지문이 있어 1차용으로는 나에게 적합하였습니다. 공탁법은 이천교의 요약집이 책이 페이지 수가 많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 요약집과 이천교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2차과목 시험 준비

원래 본인 성격상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정독해야 마음이 편해지므로 급하게 준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터라서 처음 1차 합격 후 동차 준비를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1차 시험 후 1~2일 휴식하고 바로 2차 준비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시험 최종 합격은 마지막 시험인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1차 공부 때부터 2차 시험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으므로 가능하다면 중첩되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같이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민법은 이혁준(기본서와 핵심암기장)교수, 형법은 이재영(형법강의, 5행정리암기장)교수, 형사소송법은 처음에는 김영환의 형사소송법 책으로 보다가 올패스Ⅱ 강의는 노신교수의 형사소송법(쟁점및판례정리)을 선택하였고, 민사소송법은 이혁준(기본서와 핵심암기장)교수, 민사사건서류작성은 이천교(2차 종합정리)교수, 부동산등기법은 처음에는 김기찬 2차논술강의로 공부하다가 올패스Ⅱ 강의에서는 김미영(논술 부동산등기법 강의)교수를 선택하였으며, 등기신청서류작성은 김미영교수(부동산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의 올패스Ⅱ 강의를 신청하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수강하였습니다.

민법은 1차 준비때부터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이 신경쓰이는 과목이었습니다. 아무튼 범위가 넓어 강의 시간이 많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서 틈틈이 매일이라도 조금씩 공부해두길 권합니다. 형법은 이재영 교수 강의는 중요한 포인트의 강약 조절하는 설명을 잘 하시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에서 눈뿔줄이 터져 마지막에 공부를 포기하다시피 하였는데,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떨어진 경험담 이야기가 나의 시험 합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첫 1차 합격 때인 2022년부터 김영환교수의 책과 블랙박스 요약집으로 공부하였으나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 2025년 올패스 강의는 노신교수로 들었습니다. 노신교수의 마지막 쟁점 및 판례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혁준 교수의 기본서와 핵심암기장으로 공부하였는데, 2차 시험 임박하여 핵심암기장이 나와 공부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고 글씨가 큰 요약집이 보기에 편했습니다. 민사신청서류작성 과목은 이천교 교수의 강의를 민법, 민사소송법과 겹치게 되는 부분까지 설명해주어 너무 좋았는데, 강의 편성 시간이 작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 상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저에게 있어서는 2차 시험 대비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김미영 교수의 강의 위주로 공부하였으나, 민법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서류작성과 같이 공부하기를 권하고, 먼저 부동산등기법과 등기규칙 조문을 어느 정도 완벽히 숙지하기를 권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신탁 관련 문제는 법전의 조문을 찾아 채웠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안분하는 연습

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불안하여 김기찬 교수의 3순환 전범위 모의고사를 추가로 수강하여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안도시켰습니다.

나가며

어려서 척추를 다쳐 그런지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 늘 코가 막혀 킁킁거리며 책상 위에 코뿔 화장지를 쌓아 놓은 기억이 선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했으며, 자녀 모두 대학 진학 후 마지막 정년퇴직할 때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인생 2막 평생 직장을 만들려고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고, 우연히 2020년 말경부터 전국 코로나가 확산되어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차 시험 직후인 11월 코로나 감염(그후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 고생함), 2023년 6월경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같은 해 7월 처가 장폐색증으로 입원하고, 같은 달 장모님도 입원한 후 그해 11월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같은 해 8월경 아버지 같은 존재의 숙부님이 돌아가시는 등 불행의 연속이었고, 본인도 다행히 전립선암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조심해야 할 상태라서 정상적인 공부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제29회 2차 시험은 불합격 결과를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1차 공부를 하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였고, 이제 나이 60세가 되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이나 하자고 마음잡아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저하되고 몸이 아픈 부위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2024. 6. 25. 헬스장 등록 매일 운동을 시작하여 체력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퇴직하고 2차 합격자 발표한 후 2025. 2.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원 강의를 제대로 등록해서 공부하고자 서울 법학원의 올패스Ⅱ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학원 강의 일정에 따라 공부하였습니다. 합격에 결정적

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모의고사였습니다. 2차 시험 매번 둘째 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시간에 쫓기어 큰 문제를 놓치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안 분과 필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특히 제31회 시험에서는 민사사건서류작성에는 논점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기본 형식에 맞춰 소장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법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던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교 교수님의 모의고사 채점 평이 답안 작성 시간 분배에 도움이 되었고, 특히 이재영 교수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경험담을 듣고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만약 법무사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면 처음부터 학원 강의를 권합니다. 불안한 수험생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시험에 대한 요령까지 터득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학원 강의를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2024년 여름 어느 날 소변에 피가 나와 급히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미루고 공부하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시험을 치르고 2026년 1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험 임박한 여름부터는 오전 공부만 하고 오후에는 공부가 되지 않아 학교 운동장을 서성이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아무쪼록 법무사 시험에 입문하였다면 합격까지 건강관리 하면서 합격을 믿고,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